

### ■ 파고 높아진 한-미 FTA 美 의회 비준

## 힐러리 “새로운 FTA 체결 잠정 보류해야”



Building the Road for the Middle Class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9일 아이오와주 웨스터시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힐러리 의원은 이날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평가와 새로운 FTA의 연기를 주장했다. /AP=연합뉴스

힐러리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높은 파고를 맞고 있다. 이미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9일 미국이 합의한 새 FTA의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서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힐러리, 대선 득표위한 '위험한 도박'= 힐러리는 이날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21세기 무역문제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새로운 FTA 체결은 잠정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통틀어 1위를 고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힐러리의 FTA 재검토 발언은 한미 정부 입장에선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 대선공약 포함 시사...정치권 쟁점화 업계도 찬반 격론, 비준 진동 예상

힐러리의 이런 입장 표명은 자유주의 성향인 노조의 표를 의식한 것이다. 그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혜택은 부유층에게 돌아갔을 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강조한 데서 그런 의도는 드러난다.

힐러리가 집권하면 한미 FTA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가거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힐러리 발언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발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미 의회 부정적 분위기 확산= 예로부터 친(親) 노조,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했던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부시 행정부가 자유무역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민주당은 자유무역으로 기업들이 해외 아웃소싱에 적극 나섬으로써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 양국간 최대 현안인 쇠고기, 자동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다.

주었다. 한미 FTA 처리 여부와 관련해 미 업계별로도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굴지의 2천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소비자전자협회(CEA)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나 자동차 관련 단체는 한미 FTA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미정부 내년 봄 한미 FTA 비준 표결 시도할 듯= 미국 정부는 일단 페루와 FTA의 경우 이달 말쯤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경제적 파장이 적은 페루와의 FTA를 비준해주는 대신 한미 FTA처리 경제적 규모가 큰 협정의 비준은 차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언론과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대외 로비를 계속,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봄에는 한미 FTA 비준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

## “백두대간 복원...DMZ 생태공원화”

### 盧대통령 ‘국가생물주권 비전 선포식’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남북이 함께 협력해 한반도 생태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골격이 되는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복원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공원 등으로 만들어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린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및 국가생물주권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관 개관 및 국가생물주권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생물종을 밝혀낼 계획”이라며 “우리나라에는 10만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3만 종에 불과해 생물종 조사발굴에 박차를 가해 2014년까지 3만 종을 더 밝혀내고 2020년까지 그 나머지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라며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남북 관계는 이러한 생태계 복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연생태 복원법을 새로 만들고 국토의 11% 수준인 자연환경보호지역을 2015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5% 수준까지 높일 계획”

## “수류탄 던졌는데 우리 진영에서 터져버려”

### 盧대통령 대연정 관련 회고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지난해 2005년 7월 대연정 제안 당시를 회고하며 “내판엔 건곤일척의 카드를 던졌는데 그게 흑카드가 됐고,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게 우리 진영에서 터져버렸다”고 말했다고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그때 내다본 것은 상대방이 상당히 난처해지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일사불란하고 우리 쪽은 갑론을박이 돼버렸다”며

서 “거꾸로 총알이 그냥 우리한테 날라왔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곱잡을 수 없이, 감당할 수 없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해 6월24일 당·정·청의 여권 핵심부 11인 모임에서 자신의 연정구상을 의논했고, 당시 참석자들은 가타부타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베이징 ‘탈북자 사건’ 韓-中 외교문제 비화

중국 베이징 소재 한국국제학교에서 9일 일어난 탈북자 사건이 양국간 외교관계로 비화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0일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국 공안들이 학교에 진입해 탈북자들을 연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한국 외교관들에 ‘괴담행동’을 한

데 대해 중국측에 항의했다.

특히 한국 외교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중국 공안이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 ‘총알이 빔어진 데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주중대사관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의 베이징한국국제학교에서 20대 초반의 남녀 탈북자 4명이 하교하던 유치원생들을 밀치고 학교에 들어갔다.

이어 20대 초반 여성 3명이 추가로 이 학교 진입을 시도했으나 보안요원들의 저지에 가로막히자 교내 진입을 포기하고 되돌아갔고 앞서 학교에 진입했던 4명은 오후 4시경 모두 연행됐다. /연합뉴스



### 대만군, 쌍십절 군사 퍼레이드

대만군이 10일 타이베이에서 건국기념일인 쌍십절을 맞아 장갑차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최강의 군사 무기를 동원한 이번 군사 퍼레이드는 16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는 중국을 자극하는 한편 주요 선거를 앞두고 국민당에 대한 지지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 백두산 천지 화산 재폭발 위험 고조

### 中 과학자, ‘마그마방’ 분포 확인

휴화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백두산(중국명 장마이산(長白山)) 천지 화산지구의 지진활동이 2002년 7월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그 규모도 커지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천지 화산의 재폭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지질국 지구물리연구소 우젠핑(吳建平) 연구원 등은 ‘지구물리화보’ 2007년 7월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천지 화산지구 부근에 비교적 큰 규모의 ‘마그마방(magma chamber)’이 분포돼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천지 화산지구의 폭발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지질국 지질연구소 웨이하이취안(魏海泉) 연구원은 천지 화

산의 100년 내 재폭발 확률을 100분의 10~20으로,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마그마(액체상태의 녹은 암석)의 체적을 0.1~0.5km로, 분출물질의 퇴적 범위를 반경 5km로 예측한 바 있다. 중국 과학자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천지 화산에 대한 감측과 연구를 본격화해 백두산이 중국에서 큰 잠재적 폭발 위험성을 가진 ‘활화산’의 하나임을 확인했다. 천지 대폭발의 징후는 이미 예고되고 있다. 2002년 6월28일 천지로부터 280km 떨어진 지린성 왕칭현에서 심도가 578km에 이르는 실제 규모 7.1의 심발지진이 발생한 이후 천지 화산지구의 지진이 월 평균 80여 차례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05년 7월에는 무려 228차례의 화산성 지진이 감측됐다. /연합뉴스

## 장교 1,420명 증원 논란

### 국방부 2012년까지 ‘인사적체 해소용’ 의혹

국방부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대령 111명을 포함해 총 1천420명의 장교를 증원하기로 해 ‘인사적체 해소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0일 국방중기계획(2008~2012년)의 일환으로 내년 396명을 시작으로 2009년 270명, 2010년 369명, 2011년 228명, 2012년 157명 등 향후 5년간 1천420명의 장교를 늘린다고 밝혔다. 계급별로는 대령이 111명, 중령·소령이 600여 명, 대위가 400여 명, 준위가 245명이다. 국방부는 장교 증원 소요에 대

해 우선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합동 작전 능력 제고와 작전지휘구조 보강을 들었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2012년까지 1천420명이 증원되면 군내 장교 수는 현재 7만여 명에서 7만2천여 명에 근접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2013년부터는 육군의 부대 개편, 해제 등으로 일부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며 “한시적 증원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1천420명의 직위는 2013년 이후에도 대체로 존속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12월 15일 시험확정!**

**돈되는 자격증!! 초창기 시절을 노려라!**

**‘부동산대출증개사’가 뜬다!**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해 시험된 **법회공감자격**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한 학생·주부·직장인들에 인기 호소!**

**시행처: 서울특별시교육청**

● 시험: 12월 15일(목) 오후 2시

● 접수: 11월 26일(수) 오후 5시까지

● 시험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시험장

● 합격률: 10~15%

● 자격유효기간: 10년

● 자격취득비: 15만원

● 자격유지비: 5만원

**돈이 급하게 필요한 당신**

●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자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가 오지 않았다**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자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527-3388**

**12월 15일 시험확정!**

**부동산대출증개사**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해 시험된 **법회공감자격**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완료한 학생·주부·직장인들에 인기 호소!

신용 대출을 받기 위해 자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자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527-3388**